

병원 「행복한 가정운동」 활동

〈사례 발표〉

만병 통치약

이 경 자

성빈센트병원「행가운」상담실

둘째 아들을 백혈병으로 잃고, 아들의 간질을 후원하기 위해 영세를 한지 4개월만에 나는 행가운(행복한 가정운동) 교육을 받으려 춘천으로 파견되었다. 내아들의 백혈병은 피임약을 복용하여 생긴 결과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때였다. 일주일간의 배란법에 관한 규칙이라는 내용의 교육을 마치고 하직인사를 드리러 원장수녀님께 들렀더니, 수녀님께선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서슴없이 “자연피임법을 배웠다.”라고 답변을 했더니 “아니요 우리는 피임법을 가르치지 않았읍니다.”라는 말씀에 나는 깊은 혼돈에 빠져들어갔다. 내 의식속엔 이제 자연적방법을 알았으니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흥분한 상태였는데 그것이 아니라니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가?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의문투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황당하기 그지 없었지만 자연피임법을 가르치기위한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규칙을 배운것이지 어떻게 보급하는 것은 완전히 나의 재량이였다. 더구나 병원상담실은 관계자의 출입금지라는 특수지역으로 가능한 한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보이지 않게 위치하고 있었다.

차라리, 빨래방에서 하루에 얼마만큼을 빠시오! 하면 그일을 하는 편이 훨씬 쉬울것 같았다. 참담한 가운데도 책임을 맡고 보수가 정해진 이상,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속에 스스로는 시달려야 했다.

담당수녀님께서서는 부담감갖지말고, 서두르지말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제일 어려운 입장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나 전혀 구속이 없었던 완전한 자유가 지금 돌이켜 보면 현재의 상태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큰 힘이였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사람들을 만나야만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병원대기실은 좋은 자리중의 하나였다. 병원직원으로 가까운 입고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엄마들을 접근해 부담없이 마주앉아 수다를 떨었다. 개중엔 병원사정을 알아보려는 의도였으나 내가 도울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실망도 하곤 했지만 어떤 이유로건 나에게 엄마들이 접근해 오는 것을 이용하여 대화가 진전이 될듯하면 상담실로 안내하여 기록하는 숙제를 안겨주고, 다음 만남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하루는 상담실, 하루는 방문점검형식의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엄마가 나를 보고 도망치는 때도 있었다.

“왜 하필 창피한 이야기를 나를 붙들고 해요?” 라는 말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의욕만 앞서있던 나 자신의 자존심을 쓰러뜨리기에 충분했다.

어떤 방문집 부인은 “왜 우리집에 또 왔어요. 짐액이니 월경이니하며 매일 팬티에 신경쓰는 일이 너무 더럽고 창피해요!”라고 서슴없이 거절해 왔을 땐 나의 모든것이 흔들렸다. 왜! 남들이 창피하다는 일은 내가 하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배울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데,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은 부끄럽지 않은일로 나를 가르치셨는데, 왜 내가 가르치면 창피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의혹이 나를 괴롭혔다.

그 당시 나의 모든 상태는 아는 것이 전혀없는 무지의 본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병원직원을 만나는 일조차도 거북하고 겁이났다. 무식한 사람이 병원에 들어와 이상한 일을하고 있다고 흉볼 것만 같았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많은 양의 책을 보면서 무지의 상태를 극복하려고 몹시도 애를 썼다. 성경해설집, 철학책, 월간교양지, 가톨릭시보, 신문, 사보, 등등 닥치는 대로 읽어제켰지만 많은 것을 보면 볼수록 더깊은 좌절에 빠졌다.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모르는것은 많다는 것만 확신이 되었고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런와중에도 상담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경청하라고 배웠으니 그저 듣는일만은 성실히 하였다. 그리고 점액관찰법을 만병통치식으로 사용하였다.

그저 가르쳐주는 대로 듣고만 갔으면 좋겠는데 두번째 오는 사람들은 왜 그리도 질문을 많이 하는지--- 질문할 기색이 보이면 벌써 당황하며 경직되고 얼굴이 달아올라 짙째곤 하였다. 그런던중에 이방법대로 썼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부인도 생겼다. 무엇인가 도움이 될일이라고 생각되어 열심히 쫓아다니며 가르쳐 주었는데 결국 나로 인해 유산을 해야하는 결과가 생겼으니 어쩌면 좋은가? 내가 양육비 전부를 지불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분만하라고 졸라대기도 하였다. 불안정한 나를 누가 신뢰할 수 있었겠는가? 사건 사건이 힘에 겨웠다. 가정방문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로와 별에 그을은 초체한 나의 모습은 스스로가 보아도 너무나 초라했다. 융통성도 없어 가정방문때에는 점심식사를 걸러 그야말로 춥고, 덥고, 지치고, 배고픈 불행하기 짝이 없는 자신에, 스스로 택한 방법이 너무힘에겨워 급기야는 사표를 쓰고 말았다. 그리하여 집에서 1년동안 쉬면서 마음놓고 여유있게 책을 보며 지내다보니 무엇인가 확실치는 않지만 행가운의 활동은 피임방법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생각이 미치기 시작하여 여러방면으로 분석을 시도하게 되었다.

어느덧 내가 보았던 많은 독서량이 내안에서 소화되고 정리되어가고 있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중에 기회가 우연히 찾아와 행가운에 다시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그리하여 나의 일례에대한 분석과 결과를 정리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너무 부족했다. 둘째,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주려고

애를 썼다.

세째,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도록 했어야 했다.

네째, 나 자신은 박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어야 했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보니 내가 어려워 했던 일들은 순전히 내안의 문제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신뢰심이 전혀없었던 나를 깨닫게 되었고 신앙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고, 주님만이 나를 자유롭게하신다는 말도 알게 되었다. 이사실은 알았을땐 너무나 기뻐고 또한 자신감도 생겼다. 책을 보면 모르는 부분이 나타나 예전에 전부몰랐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었다. 전부를 모른다는 것과 모르는 부분이 눈에 뜨인다는 것이 내안에 자신감과 행동의 여유를 주었기에 열심히 가르쳤다.

이제는 피임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가정의 주체자들은 올바른 질서를 지켜야 하는것이 기본이기에 생명창조질서는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근본임을, 그리고 기본이 무너짐으로 다른 문제들이 뒤틀리게 된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여기에다 행가운 운동으로 증상체운법을 가르쳤다. 체운을 매일매일 기록하고 그 도표를 가지고 ○ 일 ○ 시에 오십시오! 하고는 같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약속하니 자연히 한 그룹이 되었다.

숙제해온 부인들의 기록표를 평가하는데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하여

“기록표를 보니 X일에는 월경하졌군요.”

“지금이 임신하기 최고로 좋은 날입니다.”

“이 기록표상으로는 지금은 절대불임기이니 부부 관계를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도 좋습니다.”

“이 기록표는 임신하고 있음이 보이네요.”

“이 기록표는 배란기때 임신가능한 행위가 있었으니 임신이 될 수도 있네요.” 등등--- 엄마들이 함께보며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여 자기도 하고 싶어 했다. 우선적으로 기록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알게한 것이다.

숙제를 첫시간에 안해왔더라도 다음시간에는 반드시 해오곤 했다. 그리고 그래프해석이 끝나면 남성생식생리, 여성생식생리 등등의 커리큘럼을 짜서 그대로 이론을 정리해가니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한 부인은 “요즘 저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체온기록하는 맛에 살아요!”하며 기뻐하기도 하였다.

6개월의 교육기간이 끝나면 다시 하자고 졸라대 재수생을 가려내고 졸업생은 축하했다. 재수생이 되는 영광을 얻었다며 좋아하는 모습들은 내게 많은 보람을 안겨주었다. 또한 그래프의 규칙을 지켰는지 어겼는지를 본인이 알게 되었을 무렵 어졌을 때는 벌을 적용하였다.

별이라는 말이 잔뜩긴장했을 때 “배란후 기간에는 다음 생리시작할 때까지 매일 부부관계를 갖되 하루 3회씩입니다.”라고 하면 까르르 웃으며 풀어지곤 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 자기 자신을 열어보이는데 적극성을 띄었고 성과 책임의 시간을 모두즐거워 했다.

그리고 사랑이란 말로 불의한 행동을 협력하고 묵인했던 어리석은 과오들을 상기하고는 반성하기도 하였다. 비자연법으로 피임하던 부인은 부작용과 실패로 임신했을 때 유산했던 점도 증언해 주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몰랐던 부인들도 산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불임이었던 부인이 자연법을 통하여 임신을 해냈을 땐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한여름에 임신에 성공한 부인이 임신을 확인하고 아이스크림 파티를 열기도 하였다. 부부간의 갈등이 심했던 부인이 안전기를 기분 좋게 사용하면서 화해했던 경험담은 같은 동료 모두에게 사랑에도 바른 질서가 있다는 점을 교훈해준 사건이었다. 루프를 하고 있으면서 임신이 되어있는 2명의 엄마들이 그대로 임신을 받아들이고 몸조심하고 있는 모습은 우위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러한 여러모양의 아름다움은 옆사람에게 용기와 교훈을 주었다.

내가 행가운을 바로 이해하고 확신하며 자신을 키우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열심을기울인 결과가 너무나 감사했다.

역시, 사람들은 하느님을 닮았기에 좋은 것을

알고는 가치를 인정하는 선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한 모습을 매일 매일 지켜보는 나 자신은 너무나 행복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처음의 나의 모습과 요즘의 나의 모습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변화되었음을 감사드린다.

요일마다 오전반, 오후반이 있고, 야간엔 직장반, 일요일엔 혼전부부반--- 매일매일 바빠도 그저 이일이 즐겁기만하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유산시키는 일을 한건이라도 줄일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리 !

이 부족한 내가 도구가 될 곳이 어디 또 있단 말인가?

나의 아들에게도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순회교육때 “영사기즘 들어주고 기사노릇 좀 해서 나좀 도와주겠니?”하고는 교육에 참여를 시켰다. 언젠가 아들이 내게하는 말 제발 엄마의 사무실 명칭을 바꾸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물으시면 가족계획 상담실에 근무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엄마의 하는 일은 그것 이상의, 그것보다 더 자랑스런일인데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고 하는 말에, 나도 동감을 했지만 아직은 뽀족한 대안이 없음을 알고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대답하고 그 이상의 것이 전달되었다는 것이 몹시 기뻐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결혼하여 아기 생길 수 있는 행위를 기본에 좌우되어 이루고 유산을 서슴치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내몸이 편해선 알릴것 같다. 절망적인 모습이 이젠 성숙한 부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아름다운 나의 일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을까?

이 행가운의 가치를 알고 일을 시작하고 개척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람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나의 삶이 수강생들에게도 전달되어 영세 입교자들이 자주 생기게 되었다.

행가운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 본 병원에 감사를 드리며, 많은 병원에서도 예방의학적인 측면으로 행가운을 전개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자연법은 가정의 모든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는 위력이 있다고 감히 표현을 하고 싶어진다.